

냉전 전파사(9/10/2016)

손열

"The resonance of culture: framing a problem in global concept-history" by Andrew Sartori

문화 개념의 전파: 18세기 후반 독일 → 19세기 전반 영어권 → 19세기 후반 동유럽, 아시아 → 20세기 전세계로

전파 과정에서 번역어를 만들어 냄. 기존 어휘에 의미를 싣거나 새 어휘를 창조해 냄. 대강 '순화, 세련, 향상'의 의미를 담음.

독일어 kultur와 bildung의 영어 대응어는 culture와 cultivation

18세기말 이 두 언어는 거의 구분 없이 사용됨. 의미는 active self-cultivation 자기 수양

kultura (라틴어) → culture (영어) → la culture (불어) → kultur

culture and civilization 18세기 프랑스에서 문명 개념과 동일시 (가난의 극복, 기술 발달, 합리적 통치/법치, 지식진보, 매너 발달 등); 영국과 프랑스는 역으로 kultur를 civilization으로 번역함.

양자의 분리: 문명은 발전의 전 과정, 문화는 그 영적, 지적, 도덕적 차원의 것 즉, 전체와 부분으로서 개념화

계몽주의적 합리주의가 인간을 관료적 분화/분업 하에서 기능적 효용을 갖는 존재로 환원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으로서 문화 개념 발전.

영국: cultivation과 civilization의 구분; 안과 밖; 내면의 삶과 외부 제도

프랑스: true vs. false civilization

Francois Guizot: 문명화 속에서 도덕적 vs 물질적 진보의 이분법 허용.

자유주의 하에서 문화의 위치: JS Mill: 정치경제 영역에서 물질적 쾌락의 추구 속에서 내면적 가능성을 확대하는 자기수양이란 일종의 보조적 역할.

자유주의 문화개념은 손쉽게 문화/문명 대립론으로 진화됨. 국가에 의해 이념적으로 표현되는 집합이익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초정치적, 초경제적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자기수양으로서 문화 개념 등장. 문화는 물질문명에 대항하는 집합적, 영적 삶의 공간. (독일)

독일: 문화/문명의 구분은 정신/자연 이분법 (geist und natur)

그러나 반드시 이런 이항대립이 문화-정신, 문명-물질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었음. 예컨대 Humboldt는 zivilization과 kultur는 외면의 것, bildung은 내면의 수양. zivilization은 인간사이의 관계, kultur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로 개념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로서 문화는 독자적 주체로서 자기의 구성을 가능케 함. 자유로운 주체성의 실현이란 문제의식 하에서 문화 개념화.

문화의 인문주의적 개념화 vs. 인류학적 개념화: 자연적 결정(natural determination or the despotism of desires)로부터 해방 vs. (생물학적 결과가 아닌) 인간사회의 속성과 산물

인류학적 개념은 독일 낭만주의 Herder로부터: 칸트의 abstract universalism과 반대로 pluralistic organicism은 kultur 보다는 volk에서 비롯됨. 인류보편적 개념에 사회적 삶을 연결, 즉, 칸트의 보편주의적 문화 개념에 사회적 삶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첨가.

19세기 후반 문화 개념의 다원화, 집합화, 확장.

최대치는 직접적인 생물학적 결정론이 아닌 유형으로 개념화; 혹은 객관적, 추상적 법칙에 의해 이해되는 사회적 측면(경제학, 사회학 등)이 아니라, 객관적 결정구조로 환원되지 않는, 집합적으로 구성되는 주체성으로서 정의됨.

반실증주의, 반환원주의 과학으로서 독일 지성사(Hegelianism, neo-Kantian)의 공헌; Malinowski의 서태평양 사례를 보면 그 대상은 원시경제인이란 stereotype이 아니라, 저급한 문화로 보이지만 눈앞의 욕망을 넘어서 고도의 복합적이고 사회적인 동기에 근거하여 목표를 추구(현재적 필요의 만족, 공리적 목적의 성취 등이 아닌 다른 목표 추구)하는 인간임. 즉, 문화적 주체로서 이들은 욕망의 專制(despotism of desires)에 구속되는 사례 아님. 문화는 효용 극대화 혹은 생물학적 필요란 자연 결정론으로부터 인간 이성의 해방으로 개념화. 이 점에서 인문주의적 전통과 연결됨.

의미의 확산과 전파는 개념사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음. 여기서 특정 시공간 속에서 개념이 겪는 역사적 변환을 포착해야 함. 일정한 개념적 반복성과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음.

푸코류의 담론분석, 문화담론 실천의 제도적 양상을 구체적으로 쪼개서 분석하는 것은 문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넓은 의미의 규칙성, 연속성이란 측면을 잡아내지 못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문화담론은 이데올로기라는 주장(Hunter): 문화는 다양한, 분절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대중과 보편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를 mediate하는 기능. Lloyd and Thomas는 문화는 시민사회의 경계를 넘는 초정치적, 초경제적 공간, 따라서 국가에 상응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기능함. 따라서 이념 프로젝트임. 이 역시 문화는 특정한 기능으로부터 추출되는 혹은 기능으로 환원되는 개념으로 정의됨.

Raymond Williams: 비기능주의적 접근. 도덕적, 지적 행위와 사회의 요구를 분리, 주체/객체, 문화/사회 이분법. 근대 산업사회의 억압적, 파괴적 영향력을 비판하는 출발점으로서 문화적 주체주의(subjectivism) 주장.

20세기 지구적 전파:

문화주의: 산업사회의 물질만능주의, 자유방임, 수요공급원리, 금융화 등에 대해 이를 제도적으로 타파하자는 주장 아니라 이들로부터 영혼의 해방 꾀함.

식민지 벵갈: Chatterjee는 관료주의와 거대한 시장에 함몰되는 인도의 정신적 독립 추구; 물질적 자기이익 추구에 따른 정신의 피폐 vs. 다른 세계로 영적 탈출에 따른 쇠퇴; 제3의 모델로서 민족주의 모델(인도문화의 윤리적, 영적 실행에 기반한 발전국가 수립), 힌두문화에 기반한 공동체적 정치담론, 공리적 행위를 극복하고 자유로운 창조성을 통한 자기실현(Tagore)으로서 심미적 담론.

메이지 일본: 문명개화가 지나친 형식주의와 물질주의를 가져와 주체성의 진정한 자기수양을 말살할 것이란 위기감; 국민문화를 국가형성의 주요 축으로 삼음. 문명과 문화는 구별없이 사용되었으나 문명의 경우도 동양문명과 서양문명으로 구분. 전자는 정신적 문명, 후자는 기계문명.

1930년대 서양 기계문명, 자본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반기로서 일본의 과거 전통 삶의 양식에 근거한 문화 개념, 일정한 보편성을 갖는 칸트적 문화주의 등장. 근대의 초극론으로 연결됨.